

최승희 연구동향 분석*

- 1958년부터 2018년까지 -

유 미 희**

I. 서론

II. 최승희 연구동향 분석

III. 논의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최승희는 우리나라 무용역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연구된 인물로 평가된다. 민지연(2012)의 연구에 의하면 서양의 현대무용가 이사도라 덩컨, 마사 그레이엄을 비롯하여 한국의 무용가 한성준, 김백봉 등 24명의 무용가들이 국내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그중에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보이는 인물이 최승희로 나타났다.

최승희 연구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민이(2008), 안병주, 이보영(2008), 김채원(2012), 한경자(2012), 민지연(2012)에 의해 행해졌다. 김민이(2008)는 학술연구동향의 특징을 분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최승희 활동내용의 변화와 특성을 수표화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승희 예술활동의 정체성을 규명하였다. 안병주와 이보영(2009)은 연구동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도별, 내용별로 연구성향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한편 김채원(2012)은 한국과 일본에 수록된 북한춤 연구성과를 연대별, 연구방법별, 연구 영역별, 연구내용별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최승희 북한활동관련 연구를 데이터 분석하였다. 한경자(2012)는 학술대회를 포함한 최승희 연구현황을 분석하여 생애사, 월북 이전의 예술행적과 예술성향, 그리고 작품내용 등의 사적 연구가 그간의 주된 연구 형태임을 밝혀냈고 민지연(2012)은 연도별, 시기별, 발표유형별, 학교별, 영역별로 비교 분석하여 최승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1990년대에서 2011년까지 수록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행해졌으며 주로 무용가, 예술가로서의 최승희의 활동과 업적에 중점을 두어 최승희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최승희 연구는 1988년 월북 예술인 해금조치 이후 1990년대에 들어 본격화 되면서 2010년까지 괄

* 본 논문은 재·월북 작가 예술인 해금(1988)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terpsi2001@ginue.ac.kr

목할 만한 양적, 질적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2011년 최승희 탄생 100주년을 국내학술대회와 국제 심포지엄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활동으로 최승희 예술활동의 이력만큼이나 다각적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2018년 현재 월북예술인 해금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최승희 연구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향후 남북의 학문적, 문화적 교류에 중요한 바탕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구범위를 확장시켜 최승희 연구가 시작된 1958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연구를 중심으로 그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유형과는 차별적으로 고윤서(2015)가 제시한 연구동향분석의 분류 유목을 참조, 재구성하여 최승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고윤서의 분류유목은 다변화하는 현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이슈를 반영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연구유형별, 연구주제별, 연대별(출판형태, 유형 및 주제) 분류를 통해 최근까지의 최승희 연구동향의 분류기준을 보다 명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DB자료를 근거로 한 연구이므로 이에 누락된 결과물은 배제될 수 있으며 학술연구자료에 대한 범위는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논문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위원회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RISS에서 ‘최승희’와 ‘무용’ 키워드 검색결과 산출된 연구물을 대상으로 하였다(2018년 5월~7월). 본 자료의 수집절차는 1차 자료수집을 RISS 키워드검색을 통해 총 467개의 연구물을 산출하였다. 2차 자료수집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산출된 연구물중 최승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물을 분류하여 289편의 연구물을 산출하였다. 3차 자료수집은 2차 자료수집결과 산출된 연구물의 초록, 혹은 결론, 그리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구물의 전문을 검토하여 연구유형별, 주제별, 연대별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상호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II. 최승희 연구동향 분석

최승희연구저작물은 다음 <표 1>과 같이 총 289편이다. 단행본 21편(7.2%), 박사학위는 19편(6.6%), 석사학위논문 56편(19.4%), 그리고 학술지 논문을 비롯한 기타자료 193편(66.3%)의 결과물이 나타났으며 연구유형별, 주제별, 연대별, 총 세 가지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표 1> 최승희연구저작물

	단 행 본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및 기타자료	합 계
편 수	21	19	56	193	289
비 율	7.2%	6.6%	19.4%	66.8%	100%

1. 연구유형별 분류

연구유형이란 연구자가 선택한 연구접근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연구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유형에 우선적으로 배정, 분류하였고 연구유형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연구자의 판단을 근거로 분류하였다. 기존의 연구유형은 질적 연구, 양적연구, 그리고 질적·양적 통합적 연구방법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1958년에서 2018년까지 최승희 연구저작물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윤서(2015)가 개발한 연구방법을 참조로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즉, 질적 연구, 문헌연구, 조사연구, 연구동향분석연구, 질적·양적 통합적 연구, 체험연구, 프로그램개발연구, 기타유형으로 총 8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질적연구란 현상학적, 해석학적 연구를 비롯하여 역사적, 철학적, 이론적, 심리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로 특별한 사관, 담론, 비교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 연구이다. 총 68편의 연구가 행해졌으며 23.5%를 차지하고 있다.

문헌연구는 단행본, 논문, 영상자료, 대담자료,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루어지는 연구이다. 182편의 연구저작물로 63%에 이르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구유형이다. 조사연구는 특정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로 5편으로 1.7%이다. 연구동향분석연구는 특정 시기 혹은 연구대상을 통해 전반적인 연구의 현황이나 흐름을 양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연구유형이다. 북한춤의 연구동향과 최승희에 관한 학술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김채원, 2012; 김민이, 2008; 안병주, 이보영, 2009; 민지원, 2012; 한정자, 2012)가 5편으로 1.7 %를 차지하고 있다. 질적·양적 통합적 연구는 언어적 기술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와 계량적 수치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양적연구, 이 두 가지의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유형이다.

<표 2> 연구유형별 분류

No.	유 형	편 수	비 율
1	질적연구	68편	23,5%
2	문헌연구	182편	63%
3	조사연구	5편	1,7%
4	연구동향분석연구	5편	1,7%
5	질적·양적 통합적연구	2편	0,7%
6	체험연구	16편	5,5%
7	프로그램개발연구	3편	1,1%
8	기타유형	8편	2,8%
총		289편	100%

통합적 연구의 형태는 2편으로 0.7%를 차지하고 있다. 김경희(2006)는 최승희 무용작품분석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연대별로 작품 유형을 분석하고 무용사상을 연구함으로써 작품경향을 규명하였으며, 김호연(2016)은 한국 근대무용사의 주요인물로 최승희를 비롯한 근대무용가들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개량화하고 분석하여 당대무용담론을 고찰하였다. 체험연구는 개인적 경험이나 체험을 기반으로 한 연구유

형으로 최승희 무용프로그램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여 회고하는 형태, 혹은 최승희 무용을 재구성하면서 느낀 소감, 이에 관련된 개인적인 평을 기록한 연구물로 16편이 있으며 5.5%를 차지하였다. 한편, 프로그램개발연구는 최승희 춤을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거나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후 최종프로그램을 완성한 연구로 3편(서예원, 2013 ; 유미희, 2015, 2016)이 있으며 1.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기타유형은 학술대회 토론문 등 8편의 연구저작물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2. 연구주제별 분류

연구주제별 분류는 논문의 본문내용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저작물이 최승희의 생애, 예술업적, 예술세계가 혼합되어 이루어졌으나 연구의 핵심내용과 비중에 중점을 두어 다음 <표 3>과 같이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의 연구내용을 참조, 재구성하여 생애사, 예술세계, 예술행적, 예술업적, 작품분석, 무용외적연구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총 7개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생애사는 최승희의 삶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전기적 성격이 강한 연구로 총 10편이 있으며 3.5%를 차지하고 있다. 강이향(1989), 허영일(2002), 박신식(2007)을 비롯하여 김상규(1984), 노영희(1997)외에 5편의 논문이 이에 해당된다.

<표 3> 연구주제별 분류

No.	유 형	편 수	비 율
1	생 애 사	10편	3.5%
2	예술세계	96편	33.2%
3	예술행적	64편	22.1%
4	예술업적	17편	5.9%
5	작품분석	19편	6.6%
6	무용외적연구	80편	27.6%
7	교육프로그램	3편	1.1%
총		289편	100%

예술세계는 96편으로 33.2%라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주제이다. 최승희 예술의 특징이나 사상적, 철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박미영(2005)은 최승희의 춤이 반 예술적, 실험적인 아방가르드적 성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안병주(2005)는 1930년대 최승희 작품을 민족무용을 현대화하고 재창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영란(2011)은 최승희의 무용예술을 민족주의, 표현주의, 순수주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사상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주디 반자일(2017)은 최승희의 춤에서 한국적 양식의 근대성을 살펴보고 이애순(2007)은 이사도라 덩컨과 최승희의 현대무용양식을 비교하면서 페미니즘, 오리엔탈리즘, 내셔널리즘(2007)과 관련하여 민족적 정체성 확립에 최승희의 춤이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고찰하였다. 이 외에도 민족무용가로서 최승희에 주목하거나

(유미희, 2004a; 오세준, 2017)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최승희의 예술세계를 고찰하는 연구(유미희, 2006; 황희정, 2016) 등이 있다.

예술행적은 언론, 매체 등 객관적 자료에 기술된 행적을 중점적으로 고찰한 연구로 총 64편이 있으며 22.1%를 차지하였다. 신무용시기 최승희의 행적(김영희, 2005; 김성자, 김영희, 2013; 김호연, 2015; 김규도, 2017 등), 월북이후(성기숙, 2002; 김은한, 2006; 정창현, 2012), 그리고 일본문인에 의해 묘사된 최승희의 또 다른 예술행적(노영희, 2003; 이재성, 2008)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이밖에 현대춤의 도입 등 공연예술로서 무용을 발전시킨 선구자적 인물로서 최승희의 행보에 주목한 연구(황문숙, 1997; 김영희, 2005, 2009; 정병호, 2011) 등이 있다.

예술업적은 최승희의 무용예술이 무용사적, 예술사적 위치에서 남긴 업적에 중점을 둔 연구로 17편이 있으며 5.9%를 차지하였다. 주로 중국무용과 북한무용, 그리고 한국무용의 변화 개혁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업적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김미홍(2004)과 심숙경(2012)은 중국에서의 최승희 무용예술의 전파와 무용체계의 정립이 신중국무용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중국 고전무용체계를 세운 중요한 인물로 최승희의 공로를 평가하였다. 황경숙(1994)과 한경자(2006)는 북한무용 형성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최승희의 업적을 탐색하였다. 한편 이선주(1997), 홍기태(1998), 한경자(2008)는 최승희의 창작춤이 한국무용의 변화와 개혁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정진욱(2004)은 한국무용의 선구자로 최승희 춤을 살펴보았으며, 그 외 동양신무용의 선도자로서 조선무용과 중국 조선족 무용의 발전에 기여한 최승희 무용의 성과를 고찰한 연구(박영광, 2017; 정찌예, 2017) 등이 있다.

작품분석은 최승희 무용작품 레퍼토리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총 19편이 있으며 6.6%에 이르고 있다. 김자영(2002)과 이애순(2002)은 월북이후 조선민족무용기반의 체계를 정립한 최승희 춤을 연구하였고, 유미희(2004b, 2006)는 조선아동무용기반에 나타는 춤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티프 표기법을 적용해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의 안무스타일을 분석하였다. 한편 신상미(2006)는 최승희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중 하나인 <보살춤>을 도상학적으로 해석하여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최승희의 <장고춤>, <검무>, <초립동> 등 다양한 춤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무용외적 연구는 무용가로서의 최승희 이외에 인간적, 사회적 면모에 초점을 둔, 즉, 삶, 패션, 이미지를 재조명하는 연구 등 기타연구물이 80편 있으며 27.6%를 차지하였다. 신여성의 패션리더로서 최승희에 주목한 연구(조고미, 2008; 김성일, 2011; 박애란, 2012; 양정희, 2015; 최정근, 2017), 무용의상(박유신, 1999; 임영자, 박유신, 2000)과 음악(장유정, 2006; 문재숙, 2012), 그리고 소설(장유정, 2017) 등에 관련된 연구가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최승희 춤레퍼토리를 공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물이 3편으로 1.1%를 차지하였다. 서예원(2013)은 초등무용수업에서 최승희 관련 춤 자료를 교수매체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유미희(2015, 2016)는 최승희의 춤예술을 초·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안, 시범 적용하여 다문화무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 연대별 분류

연대별 분류는 195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연대별 분류-출판형태, 유형별, 주제별 분류

No.	연대	편수	비율	출판형태 및 비율		유형별 분류 및 비율		주제별 분류 및 비율	
1	1958-1988년	4	1.4%	학위논문2 (석사 2)	50%	문헌연구 3	75%	생애사 1	25%
				학술지 2	50%	체험연구 1	25%	예술세계 1	25%
2	1989-1998년	28	9.7%	단행본 3	10.7%	문헌연구 24	85.7%	생애사 5	17.9%
				학위논문15 (박사 3, 석사12)	53.6%	조사연구1	3.6%	예술세계 10	35.7%
						질적연구 2	7.1%	예술업적 3	10.7%
				학술지10	35.7	체험연구 1	3.6%	예술행적 6	21.4%
3	1999-2008년	111	38.4%	단행본 13	11.7%	문헌연구 76	68.5%	생애사 4	3.6%
						연구동향분석 1	0.9%	예술세계 40	36%
				학위논문29 (박사 7, 석사 22)	26.1%	질적+양적 통합적 연구 1	0.9%	예술업적 6	5.4%
						질적연구 22	19.8%	예술행적 28	25.2%
				학술지 69	62.2%	체험연구 11	9.9%	작품분석 10	9.1%
						무용외적연구 23	20.7%		
4	2009-2018년	146	50.5%	단행본5	3.4%	문헌연구 79	54.1%	생애사 1	0.7%
						조사연구 4	2.7%	예술세계 43	29.4%
				학위논문 29 (박사 9 석사 20)	19.9%	연구동향분석4	2.7%	예술업적 8	5.5%
						질적+양적 통합적 연구 1	0.7%	예술행적 29	19.9%
						질적연구 44	30.1%	작품분석 9	6.2%
				학술지 112	76.7%	체험연구 3	2.1%	무용외적연구 53	36.3%
						프로그램 개발연구 3	2.1%	교육프로그램 3	2.0
						기타연구8	5.5%		
		289	100						

첫 번째 시기는 1958년 최초의 무용석사학위논문, 유인희의 “한국신무용사: 제1부”에서 신무용기 최승희 춤의 변화양상이 수록된 연구를 시작으로 1988년까지 총 4편(1.4%)의 연구물이 있으며 이후 10년 주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번째 시기는 1989년 최승희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를 기점으로 1999년까지 총 28편(9.7%)의 연구물이 산출되었다. 즉, 단행본 3편, 학위논문 15편, 학술지 논문 10편이 있으며 세 번째 시기인 1999년부터 2008년까지는 111편(38.4%)의 연구물이 산출되었고 네 번째 시기인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총 146편(50.5%)의 연구물이 산출되었다.

각 연대에 따른 연구유형별 비율을 보면 초기에는 문헌연구와 체험연구가 주된 연구유형이었으나 1989년에서 1999년에는 조사연구와 질적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질적, 양적 통합적 연구와 연구동향 분석연구가 나타나고 2000년대로 가면서 질적연구, 프로그램개발

연구 및 기타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연대에 따른 연구주제별 비율을 보면 초기에는 예술행적에 관련된 연구가 50%로 연구주제의 절반을 차지한데 비해 1989년에서 1998년까지는 최승희의 예술적 업적과 무용외적인 연구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1999년에서 2008년까지는 작품분석에 관련된 연구가 본격화됨을 알 수 있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는 무용외적연구가 3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술세계가 29.4%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승희 춤을 교수매체로 사용하는, 즉, 학교현장에서의 무용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시작됨으로써 교육적 측면에서의 최승희 춤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논 의

최승희 연구는 고등무용교육의 성장 속에서 양적, 질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1958년 이화여대 체육학과내 무용전공으로 행해진 유인희의 석사학위논문은 학문으로서의 무용 연구풍토를 마련¹⁾한 계기가 되었다. 즉, 신무용기를 장식한 무용가 최승희를 탐구함으로써 학적 체계를 갖춘 무용사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고 본격적인 최승희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급증하였다. 이는 민지연(2012), 한정자(2012), 채국희(2014)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해금조치이후 월북예술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최승희에 대한 객관적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이다. 특히 故 정병호의 최승희 평전 출판(1995)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지에서 수집한 최승희 활동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각계 관련 인사들의 증언과 평가로 최승희 연구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최승희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더욱더 활성화 된 상황을 감안해 보면 채국희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채국희는 정병호의 평전을 바탕으로 한 TV 드라마 <최승희>(1995)의 방영이 세계적인 무용가에 대한 존재를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최승희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면서 무용 전문가 혹은 타 학문 분야의 다양한 연구주제로 최승희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는 민지연(2012)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무용학의 학문적 성장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학원 무용학과와 증설로 대학원진학이 증가하면서 여타 무용연구와 더불어 최승희 연구에도 양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1995년 이후 북한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를 그 원인중 하나로 유추한 것을 감안하면 대중문화콘텐츠의 영향이 학문적 연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최승희 연구의 다양성에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별 분류에서 보면 무용외적 연구가 1990년대 시작되어 2010년대에 오면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문학뿐 아니라 근대여성예술가, 신여성, 무용의상, 패션, 음악, 소설, 대중스타에 이르기까지 그 연구주제가 확대된 것을 보면 예술행적과 생애사 연구에 치중했던 초기 연구주제에서 생애, 업적 뿐 아니라 한 인물이 지니고 있는 내적, 외적면모, 최승희라는 인물을 매개로 하여 펼쳐지는 당시의 시대상, 문화적 흐름, 여타 관련 분야 등, 그간의 최승희에 대한 학적,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 유미희(2009), 한국무용교육의 변천과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 20(2), p.6.

본 연구결과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2010년대에 와서 프로그램개발연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이 등장하는데 이는 2005년도에 시작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최승희 관련 연구도 양적, 질적으로 풍부하고 다각화되면서 교수매체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승희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남북한 무용예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5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DB자료를 분석하여 최승희관련 연구결과물을 총 289편 산출하였으며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논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동향분석의 기준은 연구유형별, 주제별, 연대별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유형별 분류결과 문헌연구가 182편으로 63%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 질적연구 68편(23.5%), 체험연구 16편(5.5%), 기타유형 8편(2.8%), 조사연구와 연구동향분석연구가 각각 5편(1.7%), 프로그램 개발연구 3편(1.1%), 그리고 질적, 양적 통합적 연구가 2편(0.7%)이 산출되어 다양한 접근 방법이 행해졌다.

둘째, 연구주제별 분류결과 예술세계가 96편(3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무용외적인 연구가 80편(27.6%), 예술행적은 64편(22.1%)의 연구물이 산출되었으며 작품분석 19편(6.6%), 예술업적 17편(5.9%), 생애사 10편(3.5%),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관련 연구주제가 3편(1.1%)이 산출되었다.

셋째, 연대별 분류결과를 보면, 1958년 신무용 발전과정에서의 최승희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1988년까지는 4편(1.4%)에 불과했던 연구물이 1989년에서 1998년까지는 28편(9.7%)으로, 1999년에서 2008년까지는 111편(38.4%)으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2009년에서 2018년까지는 146편(50.5%)의 연구저작물이 산출되었다. 출판형태별 분류에 있어서는 석사학위논문과 학술지를 시작으로 하여 1989년에서 1998년에는 박사학위논문이 탄생하였으며, 2009년에서 2018년에는 석, 박사 학위논문이 급증하였다.

연대별로 연구유형분류를 보면 문헌연구와 체험연구가 초기 주된 연구유형이었던 것에 비해 조사연구와 질적 연구가 더해지고 이후 연구동향분석연구, 질적·양적 통합적 연구로 다양화되었고 2009년에서 2018년에는 프로그램개발연구가 나타나면서 연구접근방법이 보다 확대되었다. 또한 연대별 연구주제 분류에서는 예술행적, 생애사, 예술세계가 초기 연구주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으로 갈수록 작품분석과 무용외적인 연구가 증가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연구주제와 관점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승희 연구는 2009년에서 2018년까지가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양한 연구방법과 연구주제는 그간의 무용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학적 체계 구축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최승희 연구동향연구가 1980년대에서 2010년대 전반부 자료를 바탕으로 생애사나 예술활동 중심의 무용사적 시각에서 그 동향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이라 한다면, 본 연구는 그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분류유목을 구체화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배경과 학문적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행해진 연구물이 일부 있으나 주어진 조건 하에서만 대상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자의 현실로 인해 북한에서의 최승희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승희 연구는 다양한 활동 이력을 감안하여 볼 때, 북한에서의 연구 활동을 보완하여 분단 이전뿐 아니라 분단 이후의 성과를 통해 향후,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합의 문화예술사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술적, 무용사적 관점에서의 최승희 연구가 그간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최승희 연구의 시각과 논점을 보다 확대하여 교육적 측면에서의 그 활용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최승희의 춤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예술적 환경 등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혹은 타 학문과 융합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춤 아카이브로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무용가 최승희를 활용한 연구들이 시작되었으나 최승희의 다채로운 이력만큼 춤, 패션, 음악, 소설 등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콘텐츠화하여 남북한 문화를 비롯한 이질적 문화에 대한 차이와 소통의 매개체로서 그 가치를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강이향(1989). 『생명의 춤 사랑의 춤: 월북무용가 최승희의 예술과 삶』. 지양사.
- 박신식(2007). 『최승희: 한국 현대무용의 개척자』. 서울: 주니어랜덤.
- 베네딕트 앤더슨/윤형숙 역(2002). 『상상의 공동체』. 파주: 나남출판.
- 허영일(2002). 『최승희: 한국의 문화인물』. 고양: 교원.
- 고윤서(2015). 한국 미술치료 학위논문의 최신연구동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희(2006). 동북아 무용가 최승희의 작품분석. 『대한무용학회지』, 49: 19-45.
- 김규도(2017). 일제 강점기 최승희의 공연 활동의 의의와 그 평가 - 1936년 히비야 공회당에서의 무용 공연을 중심으로-. 『우리춤과 과학기술』, 36: 9-39.
- 김미홍(2004). 최승희 무용세계가 신중국무용에 끼친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이(2008). 학술연구 동향을 토대로 본 최승희의 예술활동 정체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상규(1984). 黎明期の新舞踊發展過程研究 (1) [여명기의 신무용발전과정 연구]. 『안동대학논문집』, 6(1): 365-379.
- 김성일(2011). 모던걸 최승희의 패션과 미적 특성 연구.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6(3): 257-268.
- 김성자(2007). 한국창작무용의 시대적 흐름에 관한 고찰.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희(2005). 일제강점기에서 현대춤(Mordern Dance)의 수용과정. 『춤과 지성』, 2: 17-28.
- _____(2013). 최승희 신무용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계기. 『근대서지』, (7): 78-86.
- 김은한(2006). 해방공간시기 북한의 무용. 『춤과 지성』, 3: 122-133.
- 김자영(2002). 최승희의 조선민족무용기본에 관한 연구. 『이화체육논집』, 6: 13-28.
- 김채원(2012). 북한춤 연구성과의 한·일 비교. 『우리춤과 과학기술』, 19: 77-104.
- 김호연(2015). 일제강점 말기 무용 활동과 그 변화 양상: 무용의 관제화 경향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38: 75-98.
- _____(2016). 무용학 재정립을 위한 시고(試考): 무용사 서술을 위한 한 방법론. 『한국무용과학회지』, 33(3): 57-69.
- 노영희(1997). 최승희의 '민족아'에 대한 자아와 그 실현 - 『나의 자서전』에 대한 '민족아'를 중심으로. 『동일어문연구』, 12: 15-25.
- _____(2003). 일본 문학 속의 조선 여인. 최승희. 『일본학』, 22: 161-182.
- 문재숙(2012). 최옥삼 가야금 산조의 남·북한 음악 비교. 『남북문화예술연구』, 12: 9-41.
- 민지연(2012). 무용가 최승희의 연구동향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영(2005). 무용철학: 아방가르드적 관점에서 본 최승희 무용예술. 『한국체육철학회지』, 13(2): 157-176.
- 박애란(2012). 연구논문(研究論文): 무용가 최승희 패션 스타일의 현대적 재조명 재조명. 『패션비즈니스학회지』, 16(4): 13-28.

- 박영광(2017). 신문 언어 계시: 최승희의 무용실체특징 시론. 『무용역사기록학회지』, 44: 27-64.
- 박유신(1999). 최승희 무용의상. 『서일대학교 논문집』, 17: 577-590.
- 박유신, 임영자(2000). 최승희 무용의상의 특성과 현대패션과의 상관성. 『복식문화학회지』, 8(5): 638-647.
- 서예원(2013). 아카이브를 활용한 초등무용수업 탐색. 『무용역사기록학회지』, 31: 45-60.
- 성기숙(2002). 최승희의 월북과 그 이후의 무용행적 재조명. 『한국무용예술학연구』, 10: 101-141.
- 신상미(2006). 도상학적 해석을 통한 최승희의 「보살춤」 창작기법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10: 65-84.
- 심숙경(2012). 중국 고전무용의 발전 현황 -신중국 성립이후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5): 121-135.
- 안병주(2005). 무용철학: 1930년대 전반의 최승희의 작품세계와 예술관. 『한국체육학회지』, 13(3): 369-381.
- 안병주, 이보영(2009). 최승희에 관한 국내 학술동향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8(2):353-363.
- 양정희(2015). 한국 모던 걸 패션의 미적특성과 스타일링 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세준(2017). 최승희의 무용극 창작론.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4): 137-155.
- 유미희(2004a). 최승희의 민족무용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무용역사기록학회지』, 6: 119-142.
- _____(2004b). 최승희의 『조선아동무용기본』 내용분석. 『무용역사기록학회지』, 7: 55-76.
- _____(2006). 모티프 표기법(Motif Writing)을 통해 본 최승희 춤 안무 스타일 분석. 『무용역사기록학회지』, 11: 75-97.
- _____(2009). 한국무용교육의 변천과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 20(2): 1-21.
- _____(2015). 최승희 무용예술을 활용한 초등학교 다문화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무용예술학연구』, 54: 129-145.
- _____(2016). 최승희 무용예술을 활용한 중·고등학교 다문화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무용예술학연구』, 61: 29-54.
- 유인희(1958). 韓國新舞踊史: 第1部.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주(1997). 최승희의 무용세계가 한국무용에 미친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애순(2002). 최승희 무용 “기본” 실체에 관한 고찰: “립춤” 기본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5: 172-201.
- _____(2007). 20세기 초 미국과 한국 현대무용양식 비교연구 - 이사도라 던컨과 최승희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54: 275-301.
- 이영란(2011). 최승희 동양사상을 통한 동양무용 발달 연구. 『우리춤과 과학기술』, 28: 91-114.
- 이재성(2008).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 속에 그려진 한국. 『日本 研究』, 24: 175-190.
- 장유정(2006). 최승희와 대중가요. 『우리춤과 과학기술』, 2: 201-222.
- _____(2017). 무용가 최승희의 소설 「전선(戰線)의 요화(妖花)」 해제. 『근대서지』, (16): 151-156.
- 정병호(2011). [무용] 그 여자의 예술. 『공연과 리뷰』, 75: 101-112.

- 정진욱(2004). 신무용시대의 인물론 I -최승희를 중심으로. 『한국 스포츠 리서치』, 15(4): 773-782.
- 정창현(2012). '전설의 무희' 최승희의 부활. 『민족21(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전문지)』, 62-67.
- 조고미(2008). 1930년대 한국 신여성의 패션 스타일 연구 -무용가 “최승희”를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8(1): 51-56.
- 주디반자일, 김은희 역(2017). 최승희의 춤에 나타난 한국의 근대성. 『무용역사기록학회지』, 44: 97-132.
- 채국희(2014). 최승희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콘텐츠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정근(2017). 잡지 『삼천리』를 통한 최승희의 이미지 연출 양상 고찰. 『인문사회 21』, 8(5): 1257-1272.
- 쨍지에(2017). 영접 및 거절의 선택 : 세계를 향한 한중무용 - 최승희의 「동양무용예술의 재생」을 시발점으로 사고. 『코리아댄스커넥션 2017국제포럼』, 2017(11): 20-25.
- 한경자(2006). 최승희와 북한무용. 『공연과 리뷰』, 54: 34-40.
- _____(2008). 최승희 예술이 한국창작 춤에 끼친 영향. 『남북문화예술연구』, 3: 233-254.
- _____(2012). 최승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체육사학회지』, 17(1): 95-107.
- 황경숙(1994). 북한무용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2(1): 113-130.
- 황문숙(1997). 1930년대 한국 현대무용의 태동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논문집』, 13:807-822.
- 황희정(2016). 최승희 춤추는 몸과 일상에 나타난 근대 신여성의 여성성연구. 『무용역사기록학회지』, 43: 197-214.
- 홍기태(1998). 최승희 무용이 한국 창작무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논문투고일 2018. 9. 15
심사일 2018. 9. 19
심사완료일 2018. 10. 4

An Analysis of the Trend of Researches on Choi Seunghee

— From 1958 to 2018 —

Yoo, Mihee*

Professor of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the researches on Choi Seunghee. From 1958 to 2018, a total of 289 researches related to Choi Seunghee were calculated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material of the Korean Educational and Scientific Information Service Institute. Among them, book, theses, and academic journal articles were targeted for this study. The criteria of research trend analysis were classified by research type, topic, and date.

In the classification results by the research type, literature study occupied the largest proportion of 63%, and in the classification results by the research topic, Choi Seunghee's art world was the most with 33.2%. The classification results by the research date, showed that the initiative research of Choi Seunghee in the development of the new dance was conducted in 1958. There were only four studies until 1988, but there were 28 studies between 1989 and 1998, and 118 studies between 1999 and 2008, which showed a remarkable quantitative growth. Also, a total of 146 research works were produced between 2009 and 2018.

Keywords: Choi Seun hee(최승희), Dance art(무용예술), Research trend(연구동향), North Korean dance(북한 무용), Choseon dance(조선무용)